

H A N Y A N G U N I V E R S I T Y

한양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가이드북



한양대학교
HANYANG UNIVERSITY

PULSE OF INNOVATION

THE BEST FOR A BETTER WORLD

HANYANG UNIVERSITY

contents

한양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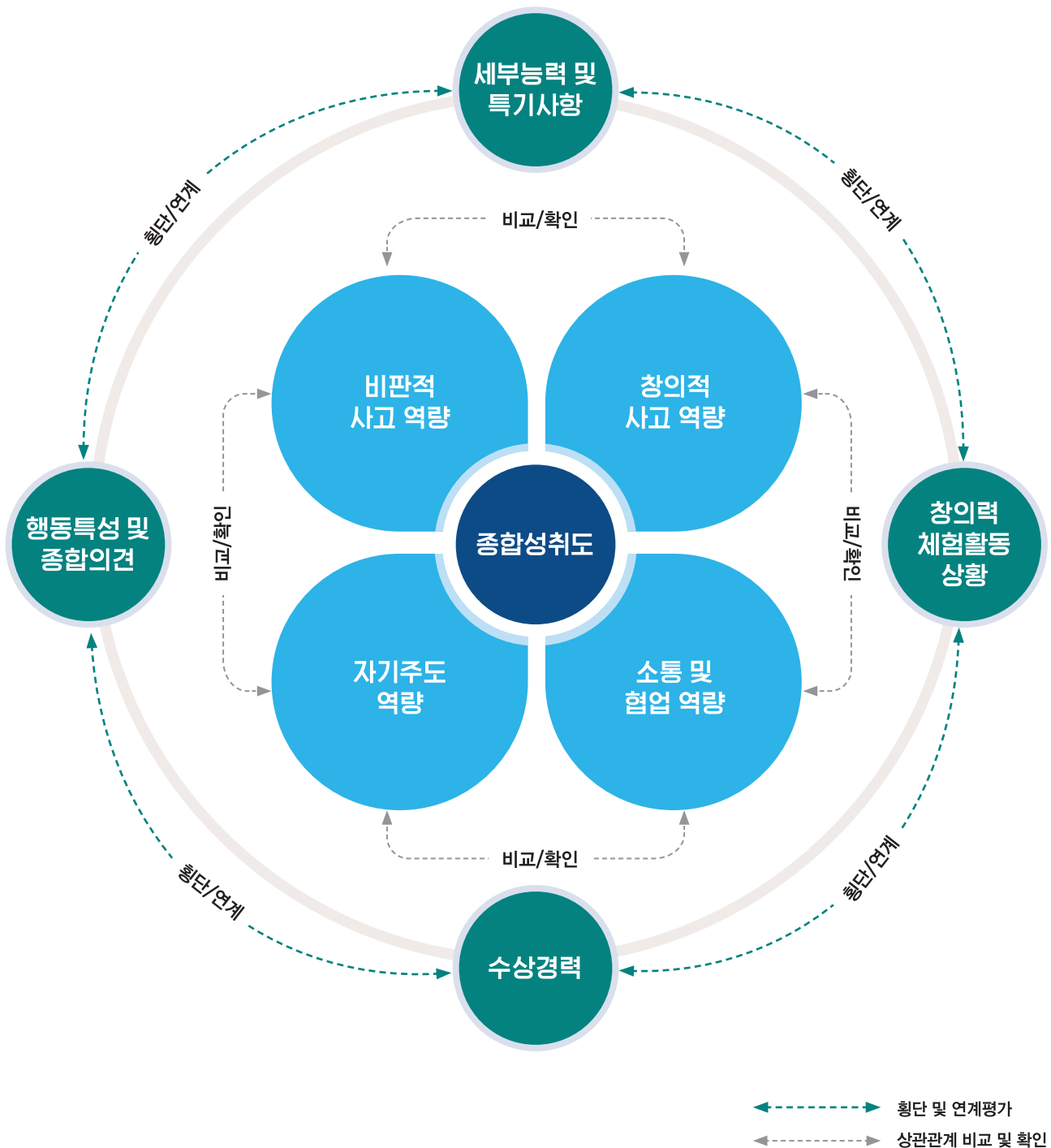
1. 평가영역	04
2. 평가키워드	06
3. 평가요소	07
4. 평가절차	12
5. FAQ	13
6. 합격자 인터뷰	16



한양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종합평가에서는 학생부의 주요평가영역(수상경력,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나타난 각 학생의 종합성취도와 4대 핵심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01 평가영역

학교생활기록부 항목 중 중점적으로 평가되는 항목은 수상경력,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4가지 영역이며, 그 외 항목들은 평가 시 참고 영역으로만 활용됩니다.



- 평가 시 학생의 인적사항 및 출신학교 등의 정보는 블라인드하여 평가하며, 그 외 학생의 재적상태, 전출입, 학교폭력 관련 조치 사항 등을 참고합니다.
- 출결사항은 학교생활의 전반적인 '성실성'과 '충실도'를 보여주는 항목으로, 인성평가 시 미인정 결석 및 지각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미인정 결석 및 지각이 다수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 고교실사를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여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상경력

대입전형에서는 학기당 하나의 수상경력만 대학에 제공됩니다. 이에 따라 학생부 상에서 본인의 강점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수상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수상경력의 유무, 등위 등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수상경력에서 드러난 학생의 역량을 창의적 체험활동,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서 드러난 역량과 상호 연계 및 비교 확인하여 횡단평가를 진행합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학생이 고등학교 생활에서 교과 외에 경험한 모든 교내활동이 드러나는 항목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학생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심 분야에 대해 본인만의 계획을 갖고 심도있게 진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학생의 비판적 사고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자기주도 역량, 소통·협업 역량을 확인합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에서 드러난 학생의 역량을 수상경력,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역량과 상호 연계, 비교 확인하여 횡단평가를 진행합니다.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3년간의 고등학교 생활 중에 가장 많은 선생님께서 개별 학생의 다양한 역량을 관찰한 부분이 담겨있는 주요 항목입니다. 본인의 관심과 진로에 맞추어 위계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좋은 성취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신의 등급만으로 정량평가하지 않으며,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이수자 수 등과 함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각 과목의 선생님께서 작성해주시는 학생에 대한 기술과 상호 확인하여 역량에 대한 평가를 진행합니다. 또한 지원학과와의 계열적 특성에 따라 [수학·과학교과 / 언어·사회교과]에서의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담임선생님께서 1년 동안 한 학생을 전반적으로 관찰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과, 비교과, 그 외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특성과 태도, 성향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기술해주는 항목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따로 추천서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항목이 추천서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은 학생의 인성 역량인 자기주도 역량, 소통·협업 역량을 평가할 때에 중점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02 평가키워드

횡단평가

횡단평가는 한양대학교 학생부종합전型的 주요 평가방식입니다. 주요 평가영역(수상경력,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서 5개 평가요소(종합성취도, 비판적 사고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자기주도 역량, 소통·협업 역량)의 상관관계 및 상호연계성을 바탕으로 1, 2, 3학년 전체를 유기적으로 검토하여 평가를 진행합니다.



학생부 내에서 학생의 역량을 비교 · 검증



창의적 사고 역량 확인

03 평가요소

종합성취도

종합성취도는 단순한 교과 성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학생이 이수한 과목과 과목의 성취도(등급,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이수자 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수상경력,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학생부에 기록된 학업 관련 기록을 토대로 학생의 교육 여건과 고교의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3년간의 종합성취도를 정성적으로 평가합니다.

4대 핵심역량



1 비판적 사고 역량

- 학교생활기록부 항목 중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중심으로 학생의 학업적 성장과정과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학생 개인의 학업적 역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확인된 학생의 학업 역량을 ‘수상경력,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서 상호 비교 및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 한양대학교는 전공적합성이 아닌 계열적합성에 초점을 두어 평가합니다. 지원학과의 계열적 특성에 따라 [수학·과학교과 / 언어·사회교과]에서의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학생부 사례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경제 이슈에 대한 기사들을 가지고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기사에서 인용한 통계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됨. 이에 수학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친구들과 함께 협력하여 언론에서 잘못 인용한 통계 자료들을 발견하는 활동을 함. 대표성이 없는 편향된 표본에서 나온 데이터라든가 비교 집단이 잘못 형성된 경우 등 통계가 잘못된 결론을 지지하는 근거로 사용된 경우를 발견하였고, 경제 정책에 대한 기존의 평가를 재조명하는 안건에 대하여 동아리 부원들과 토론을 진행함.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화학II : 화학생명공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으로, 매 수업 시간마다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실생활에 연관지어 새로운 문제 상황을 만들고 이에 대해 고민하고 질문하며 친구들과의 토론을 유도함. 토론과 질문을 통해 문제에 대한 자신만의 논리를 만들고, 단계적으로 추론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음. 화학제품 부작용에 대한 수행평가 주제로 탈리도마이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해 탐구하는 과정에서, 광학 이성질에 관한 이론적 내용을 알아보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당시 동물실험 결과와 실제 인체에서의 효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친구들과 고민하는 모습을 보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제기한 가설의 타당성에 대해 교사에게 물어보면서 자신의 사고과정을 검증하려는 태도도 보여줌.

확률과 통계 : 풀이 과정에서 논쟁거리가 될 법한 요소를 잘 찾아내어 그 논리에 대해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친구들의 수학적 사고력을 향상시킴. 탐구심이 높아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항상 비판적인 질문을 통해 제 것으로 소화하는 좋은 습관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매 수업 시간을 생동감 있게 만들. 또한 새로운 개념을 학습할 때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나 타 교과에서 배운 내용과 연관시켜 사고를 확장해 나가는 태도도 보기 좋음. ‘통계로 바라보는 세상’ 글쓰기 시간에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4대강의 수질오염 현황을 파악함. 통계에서 낙동강의 수질오염도가 다른 강과 다른 분포를 가진 것에 의문을 품고 조사한 결과, 2011년 갑작스러운 수질오염도의 낙폭이 있었던 이유는 그 해 실시된 수질오염개선책 때문이라는 분석적 사고를 보여줌. 이를 통해 통계는 논리적 사고 과정의 유효유 역할을 한다는 것을 습득함.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수업 시간에 배운 지식을 단순히 이해하고 암기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몇 단계 더 나아가 주어진 사실을 비틀어보거나 지식을 확장하려는 탐구정신을 가지고 있는 학생임.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자주 하는 학생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논리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내린 소기의 결론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는 모습이 인상적임. 수업 시간에 교과 내용이나 문제 풀이법과 관련한 비판적인 질문을 제기함으로써 다른 학생들도 함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함.

2

창의적 사고 역량

- 학교생활기록부 항목 중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중심으로 학생의 학업적 성장과정에서 드러나는 창의적 사고역량을 확인합니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확인된 학생의 창의적 사고역량을 '수상경력,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서 상호 비교 및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 문제해결과정에서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본인만의 방법,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하는 모습을 확인합니다.
- 과목 내 다른 단원 혹은 다른 과목, 사회현상 등과 융합하여 접근하는 모습을 확인합니다.

학생부 사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생명과학 II : 평소 흥미 있는 주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다방면으로 이해하는 것을 즐기는 학생임. 두통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친구를 보며 뚜렷한 원인이나 해결책이 없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뇌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알아낸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많은 관심을 가짐. 교과서에 나온 단순한 구조보다 더욱 세세한 뇌의 구조를 궁금해 하여 세분화된 뇌의 구조를 찾아 부위별 기능과 특징에 대해 정리하는가 하면 이를 사회과학 분야로 확장시켜 뇌와 관련된 시대별 인식과 질병의 처리 등에 호기심을 갖는 등 간학문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보여줌. 또한 학습을 할 때 외우기보다 원리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익히려는 자세가 두드러져, 다양한 유형의 문제에 뛰어난 적응력을 보이는 우수한 학생임. 일례로 중합효소연쇄반응(PCR)에서 회로가 반복된 횟수에 따라 증폭할 target DNA가 복제되는 분자 수가 몇 개인지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간단한 수학적식을 만들어 발표하는 등 복잡한 개념에 대해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는 데 뛰어남.

문학 : 섬세한 읽기를 바탕으로 문학작품의 내용과 형식이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잘 이해하고 다양한 맥락에서 감상함. 채만식의 소설 <탁류>를 읽고, 작품의 배경인 금강의 흐름과 초봉의 삶을 연계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고 주제의식을 깊이 이해함. 문학사에 대한 수업을 들은 뒤에는 고려가요 모음집, 무진기행 등 시대별 문학 작품들을 문학사와 한국사를 비교하여 맥락을 파악하려 노력함. 관심의 저변을 넓혀 문학작품에 반영된 시대상을 알아가는 것에 흥미를 느껴 근대 문학사를 정리하면서 전쟁, 독재, 산업화 등으로 인한 인간소외 현상이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인간중심적 사고와 기술의 진보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내용의 발표를 함.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는 깊이 있는 시각과 더불어 우수한 표현력을 드러낸 발표였음. 또한 강은교의 '우리가 물이 되어'를 배운 뒤 '물'과 같이 자신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는 소재를 찾아 글을 작성하고, 고려가요 '동동'을 배운 뒤 월령체 형식을 모방하여 학교생활을 월별로 풀어낸 시를 창작해 내는 등 문학작품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응용력이 뛰어난 학생이라고 판단되었음.

확률과 통계 : 통계단원의 연속확률분포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며 이를 활용한 다양한 문제들에 강점을 보임. 또한 통계학적 데이터와 실생활의 연관성을 찾아내 사건을 폭넓고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분석적인 사고가 돋보임. 평소 학생이 좋아하던 의류 브랜드가 도산한 것을 계기로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양한 요소들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를 분석해 보고자 그룹 프로젝트를 진행함. '소비자의 구매 및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주제를 정해 확률적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관련 통계자료 및 통계적 추정과 더불어 이면에 제시된 시대적, 사회적, 심리적 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인포그래픽으로 재해석하여 발표하는 등 독특하고도 고유한 브랜딩 및 상품 판매 전략을 구축함.

3 자기주도 역량

- 학업 및 진로와 관련된 흥미에 대해 스스로 발전시키고 확장해나가는 과정을 확인합니다. 이때 지원 전공과 관련하여 한정될 필요는 없으며, 학생이 관심 분야나 특정 주제에 연속성과 지속성을 갖고 활동한 모든 부분을 의미 있게 평가합니다.

학생부 사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물리II : 물리II 교과에 대한 호기심이 아주 많은 학생으로 물리학의 기본 개념을 잘 정리하고 그 원리를 정확히 이해함.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더 알고 싶은 내용은 친구들과 토론하며 실험으로 확인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부족한 부분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반복적인 학습으로 물리 분야에 대한 큰 성취 결과를 보여줌. 물리 법칙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이론적인 개념들에 더 큰 호기심을 보이며 단순한 암기보다 공식 등의 유도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원리를 알고 유도 방법을 익힘. 영화 속 물리학 찾기 수행평가로 영화 ‘앤티맨(2015)’, ‘앤티맨과 와스프(2018)’를 보고 양자 세계에 대해 관심이 생겨 양자물리에 대해 조사를 함. 이를 더 발전시켜 터널링 현상과 양자역학, 다이오드의 원리 등과 접목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수업 시간 중 발표하여 친구들과 선생님께 큰 호응을 받음. 이에 그치지 않고 조사 과정 중 알게 된 에사키 다이오드가 교과 과정에서 학습한 ‘미시세계와 양자현상’과 관련이 있다는 것에 호기심이 생겨 <파인만의 여섯가지 물리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쉬운 양자역학 수업>(리마오)을 읽는 등 스스로 심화 학습하는 능력이 뛰어남.

화법과 작문 : 수업 시간에 한 번도 자는 모습을 본 적이 없을 만큼 성실히 임하는 학생임. 수업 시간의 교사 발문에 단순하고 직설적인 어법으로 답변하면서도 언어감각에 대해 자신이 부족한 면을 잘 알아 스스로 보완하고 고쳐야 할 부분을 찾아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돋보이는 학생임. 한 예로, 자신의 생각을 말과 글로 표현하는 데에 스스로 부족하다 인지하고 <데미안>과 <진화심리학> 두 권의 책을 읽고, 줄거리, 논의점, 심층조사 및 분석, 발표와 토론, 피드백의 5단계 작문 보고서를 작성함. 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요약하고 정리하여 발표하는 능력이 크게 향상됨. 단순 활동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이슈나 국제적인 사건사고 등에 접목시키는 등 작문실력 향상에 대한 열의를 느낄 수 있음.

물리 I : 물리현상에 대한 전반적인 흥미와 이해력이 높고, 물리현상과 건축물의 관계를 연결하여 생각하는 학생임. 경주, 포항지진으로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식함. 건축물의 안정성과 지진피해 및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알고 싶어 돌림힘이 지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조사함. 돌림힘이 구조물의 붕괴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을 통해 알아보고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고 발표하여 친구들과 선생님께 큰 호응을 받음. 또한 파동에너지가 진동수와 관련 있음을 알고 공진현상에 대해 질문함. 타코마 다리붕괴와 양제 다리의 사례를 조사하여 다리 길이를 정상파 파장의 정수배로 만들면 다리가 붕괴될 수 있음을 알고, 공진현상과 건축에 대해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며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보임.

4 소통·협업 역량

- 학교생활기록부 항목 중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서 확인된 학생의 소통·협업 역량을 ‘수상경력,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상호 비교,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학생의 배려, 나눔, 리더십, 팔로워십 등의 품성적 우수성이 타인에게, 더 나아가 공동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이끌어 내는 과정을 확인합니다.

학생부 사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한국지리 :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 프로젝트’ 활동에서 조장을 맡아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지 않고 조원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해주고 수용하며,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조원들의 협력을 이끌어 내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운영함. 도농복합도시로 다문화가정이 많은 00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의 포용성에 대한 교육 자료인 ‘너와 내가 함께 사는 00시’를 제작하여 친구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킴. 처음에는 인근 지역 중학교를 방문하여 직접 교육을 진행하는 방안을 계획했지만 수업 등으로 인해 섭외에 어려움을 겪음. 이에 해당 내용을 1분 30초짜리 UCC로 제작하고 학교 SNS에 업로드하여 배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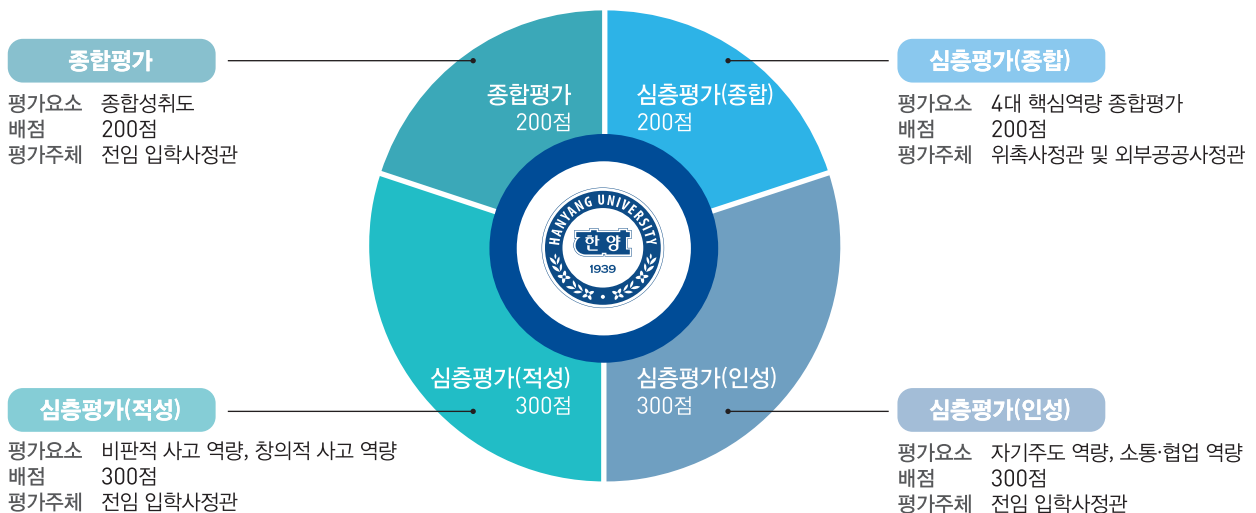
화학 I : 평소 환경 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생으로 ‘우리 생활 속 화학 키워드 찾기’ 수행평가에서 ‘석유 시설 인근의 멕시코강과 호수에서 매너티 50마리 떼죽음’ 기사를 통해 정제되지 않은 석유화학 성분으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으나 석유회사 페멕스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을 알게 됨. 이를 통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사용뿐만 아니라 처리과정 및 국가 기관의 관리·규제도 중요함을 인식함. 후속 활동으로 환경과 관련된 주제를 선택한 학급 친구들과 함께 조별 활동을 진행함. 활동 초반 ‘환경’이라는 키워드로 모인 것이 무색하게 대기오염, 핵폐기물 등 각자의 관심 분야가 달라 어려움을 겪었으나 조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절충안을 제시하여 갈등 해결에 도움을 줌. 한 학기 동안 올바른 화학물질 사용을 위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이수, 산업폐기물 처리에 관한 정부 정책 및 국제법 찾기,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안전한 사용방법에 대한 교내 캠페인 진행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함.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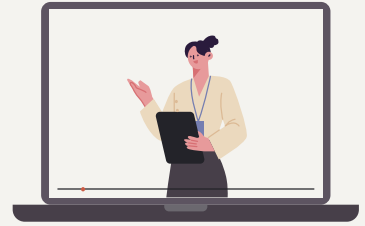


친구들과의 갈등 조절과 협력적인 태도가 돋보이는 학생임. 연구 과정에서 역할 분배와 수행에서 갈등이 발생했는데, 각자 역할의 힘든 점을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갈등이라고 생각해 조원들끼리의 대화를 주도함. 단순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아닌, 본인이 술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 타인이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재능이 보임. 역할의 힘듦의 강도를 숫자로 제시하고 가장 강도가 높은 역할을 본인이 맡아서 하는 모습을 보여 교사로서 감탄을 함. 학년 말 많은 책과 쓰레기를 버려야 하는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본인이 나서서 주변 역할을 함. 혼자 묵묵히 진행하면서도, 다른 주변과 협력하며 본인의 역할을 해내는 학생임. 평소 갈등 관리 능력이 뛰어나 친구와 갈등이 생겼을 때 본인이 먼저 다가가 사과하는 대담성과 용기를 가지고 있음.

04 평가절차



05 FAQ



Q

수시모집에서 여러 개의 전형에 복수 지원할 수 있나요?

A

우리 대학의 수시모집에 지원할 경우 여러 가지 전형에 중복(복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시모집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일반)에 함께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고른기회)의 지원자격에 해당되는 학생은 학생부종합전형(일반)에도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한 개의 전형에서는 한 개의 모집단위에만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

2022학년도부터 수상은 학기당 1건만 선택해 대입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데요, 이때 어떤 수상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2022학년도부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제한으로 인해 수상경력을 한 학기에 1개만 제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년도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에 비해 수상경력 영향력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상경력은 우리 대학 학생부종합평가의 주요 영역으로, 횡단·연계평가를 통해 각 수상경력의 내용과 학생부의 다른 항목을 연계하여 종합·정성평가합니다. 따라서 수상실적 선택 시, 학교생활기록부의 여러 항목에서 드러난 본인의 역량과 연관성이 높은 수상실적을 선택하는 것이 본인의 강점을 돋보이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Q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모두 참여하는 것과 개인의 흥미를 고려하여 특정영역을 선별해 심화활동을 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경우가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A

두 가지 모두 평가 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고교활동 과정 속에서 보이는 학생의 역량을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활동을 한 것과 본인의 특성이 보이도록 선별해 활동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각의 활동 속에서 본인이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추후 배움을 통한 결과가 어떠했는지 등 연계적인 부분이 더욱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본인의 진로를 결정한 학생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고교 진학 후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하며, 본인의 적성과 관심도를 찾고 그 관심도에 따라 심화된 활동을 찾는 과정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입학사정관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그런 과정들과 그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역량의 근거를 찾고, 이를 기반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Q

지원하는 전공과 관련된 활동이 많이 없는데, 학생부종합전형 지원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A

우리 대학은 전공적합성이 아닌 계열적합성에 초점을 두어 평가합니다. 특히 4대 핵심역량 중 비판적 사고 역량 평가 시 지원하는 전공이 속한 계열과 관련된 교과, 활동, 프로그램 내에서 지원자 개인의 역량이 어떤 과정을 통해 발전되어 왔는지를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자연계열 모집단위 평가 시 지원자의 수리·과학적 역량에 중점을 두며, 인문계열의 경우 언어·사회과학적 역량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Q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경우 담임 선생님 한 명이 기록하는 항목이다 보니 담임 선생님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는데,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 실제 평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A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담임 선생님께서 1년 동안 학생의 모습을 관찰하여 기록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본교에서는 해당 항목을 학년별 담임 선생님의 추천서로 판단하고 주요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해당 항목에서 드러나는 학생 간의 관계성과 나눔과 배려의 실천, 규칙 준수 등은 변별이 가능하며, 학생 간의 상당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대 핵심역량 중 인성 및 잠재력 영역에 해당하는 자기주도 역량, 소통·협업 역량 평가 시 주요 평가영역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Q

학생부 기재 요령의 변화로 인해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까요? 한양대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한 평가방법을 알려주세요.

A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우리 대학 학생부종합평가의 4개 주요 평가영역 중 하나로 그 중요성은 늘 선두에 있었습니다. 정량적인 교과학습발달상황을 통해 학업수행의 성취도를 평가한다면, 정성적인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는 학생 개인의 역량에 집중하여 평가합니다. 교과 수업 내에서 자신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 심도 있는 발표를 준비하면서 비판적 사고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자기주도 역량이 표출되기도 하고, 협업과정에서 소통·협업 역량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개별 학생이 고등학교 3년간 만난 다양한 교과목 선생님께서 관찰해주신 학생의 역량을 기반으로 학생부 내의 다른 영역(수상경력,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서 나타난 역량과 상호비교, 연계하여 평가를 진행합니다.

Q

고등학교마다 다른 교육과정과 수업환경을 갖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양대학교에서 권장하고 싶은 운영방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A

한양대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학교의 모습보다는 다양한 학교의 교육 여건 속에서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 성장한 학생의 모습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학교마다 수업의 진행 방식과 내용은 다양합니다. 따라서 한양대학교는 학생들 개개인이 각자에게 주어진 기회를 얼마큼 스스로 활용하여 노력해왔는지, 어떤 동기와 의지를 가지고 활동했으며 그로부터 얼마큼의 성장을 이루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합니다.

Q

관심 있는 교과목이 소수 인원으로 구성되면 내신을 잘 받지 못할까 봐 선택하기가 두려워요. 소수 인원으로 구성된 과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A

한양대학교는 학업역량을 단순히 등급만을 보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께서 기재해주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수강 학생들의 평균점수, 수강 인원 및 표준편차까지 고려해 평가하므로 소수 학생이 이수한 과목 때문에 등급이 낮아졌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충분히 고려해 선택 과목을 이수하고, 노력한 모습을 보일 때 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진로선택과목이 많을수록 평가에 유리한가요?

A

각 고교는 학생 인원, 교사의 수급 등 여러 환경과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개설하게 됩니다. 학생들에게 주어진 교육과정 내에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관심 있는 분야의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대학은 단순히 진로선택과목의 이수과목 수 혹은 성취도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과목선택과 이수경로를 면밀히 살피고, 각 과목을 통해 어떠한 역량을 성장시켰는지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통해 확인합니다.

Q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학교 혹은 교사의 학생부 작성 방식에 따라 학생부의 내용이 다양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 한양대학교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A

학생부종합전형은 기본적으로 3년간의 학생 활동과 역할 수행, 역량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를 진행합니다. 학생의 다양성을 정성평가를 통해 인정하는 것처럼 각 교사의 개별성 및 평가권 역시 존중합니다. 따라서 기재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하며, 방식이 다르더라도 학생의 개별 활동 기록에 구체성이 담보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또한 다수 다단계 평가, 횡단평가 및 고교 실사 과정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사항이 아닌 단순 미사여구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단순 기재 방식에 의한 평가는 지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한양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입시 수요자의 부담을 낮추고 사교육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기소개서 및 추천서와 같은 기타 서류가 없습니다. 학생부만으로 100% 정성평가하기 때문에 학생의 활동 내역 자체가 학생부에서 누락된다면 이에 대한 고려가 어렵습니다.

Q

면접이나 기타 보완할 서류가 전혀 없는 한양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생활기록부 내용의 진위여부가 의심될 경우, 이를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나요?

A

한양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이나 면접, 자기소개서와 같은 추가 평가 요소 없이 오직 학교생활기록부만으로 학생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있으며, 교사의 세심한 관찰을 통해 작성된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교육과 교사에 대한 믿음으로 작성된 모든 내용을 신뢰하며 평가하고 있으나 간혹 학생의 역량을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내용의 진위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고교를 직접 방문하는 고교실사를 실시합니다. 담임교사뿐만 아니라 교과담당교사, 동아리담당교사 등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실제 작성한 교사들과 직접 만나 기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학생의 역량과 우수성을 재확인합니다.



06 합격자 인터뷰

Q1 고등학교 3년간 어떤 학생이었는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등학교 3년간 교실에 가장 먼저 오는 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다른 친구들에 비해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행학습을 전혀 하지 않고 고등학교에 입학한 저는 학업적인 측면에서 반 친구들에 비해 많이 뒤처지는 편이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입학 후 첫 모의고사에서 반 등수로 27명 중 23등을 하였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저는 아침 조레 시간보다 1시간 30분씩 일찍 나와 국어 모의고사를 풀기도 하고 영어 단어를 외우거나 수학 문제를 푸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선생님들과 친구들로부터 진짜 성실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라며, 성적은 몰라도 그 노력만큼은 1등이라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더욱 저에게 자극을 주었고, 학교 활동이든 내신 공부든 모든 분야에 있어서 성실히 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졸업 학기인 3학년 2학기 때에는 가장 자신 없던 영어 과목에서 교과우수상을 받았으며 모의고사에서도 반 1등을 여러 번하기도 하였습니다.

- 건축학부 20학번 김00



저는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한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일반 고등학교로 진학하였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기본적으로 내신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열심히 하는 편이었으며, 성적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수행평가도 성실히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또한, 어떤 활동이든 가리지 않고 학교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경제금융학부에 재학 중이고, 학창 시절에도 상경대 진학을 목표로 하였지만 이과, 문과 등 계열을 가리지 않고 모든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활동 참여가 저에게는 가장 큰 장점이자 부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다 보니 전공을 선택할 때 수많은 점점들을 찾아 전공 계열의 특성에 맞는 학교 활동들을 부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생님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진로에 대한 고민이나 수업 시간 중 궁금한 점이 있으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학교를 마치고서도 항상 선생님께 여쭙보고 조언을 얻으며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선생님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나중에 입시를 준비할 때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경제금융학부 20학번 정00



저는 '공학'이라는 분야에 폭 빠져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직후에 화학을 수강했지만, 흥미를 느끼지 못해 자연계열을 선택해도 될지 의문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처음 물리를 수강하여 다른 과목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재미를 느꼈고, 학교 방과후수업인 '전자회로' 과목을 수강하며 공학 분야의 진로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생각들을 정리하고, 공학적인 원리를 이용해 실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후 공학과 관련된 활동이라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참여하였고,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었던 모교의 특성을 활용하여 <공학기술>, <제품디자인>, <정보과학> 등의 수업을 들으며 공학도로서의 역량을 키우고자 했습니다. 3년간 두 차례의 과제연구를 진행하였고, 교내의 공학 동아리를 통해 공학교실 교육 봉사 활동과 창업 활동을 경험해보았으며 <발명품 경진대회>, <창의공학설계 경진대회> 등의 교내 대회에 여러 차례 참여하며 공학에 향한 저의 관심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습니다.

- 산업공학과 19학번 허00



고등학교 3년 동안 친구들과랑 즐겁게 놀고, 모든 일에 열정적이었던 학생이었습니다. 특히,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여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였습니다. 반장과 동아리장을 자주 맡아 모범 장학생으로 선발될 정도로 친구들과 선생님들로부터 많은 신임을 얻었습니다. 또한 기자라는 제 장래 희망을 위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학교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모교를 알리고, 실제 교내 뉴스를 만들어보기도 했으며, 여러 글쓰기 대회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역사에 큰 관심이 있어 학생들의 역사의식을 바로잡아주는 활동에 자주 참여하였습니다. 공부에서도 목표 의식이 뚜렷하여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특히 국어와 영어 과목에서는 항상 높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학업 외적인 부분에서도 교내 무대 동아리에 가입하여, 공연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학업 스트레스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었고, 즐거운 고등학교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 국어국문학과 20학번 김OO



저는 하고 싶은 것들은 꼭 다 해내야 하는 욕심이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평소에 꾸준히 내신과 모의고사를 위한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학생회, 동아리, 교육봉사, 각종 교내 대회 등 다양한 활동들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하루는 일정이 겹쳐서 점심시간에 학생회 회의에 참여한 후 곧바로 이어진 동아리에서 부장으로서 활동을 진행하고, 탐구대회 발표를 하고, 야간자율학습까지 참여하는 일정을 소화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가끔은 저의 의지를 체력이 따라주지 못해서 속상하기도 했지만 낙담하지 않고 나름대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과를 계획하고, 하루 동안 계획을 실행하고 계속해서 수정하는 습관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내려고 하다 보니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여러 활동들을 하면서 기본적인 공부 시간을 챙기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일과에 우선순위를 매기고 순서대로 실행하는 습관을 들였고, 이러한 시간관리 역량은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대학생활에 여전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경영학부 20학번 이OO

Q2 고등학교 생활 중 가장 중점을 두고 활동했거나 노력한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에서 활동을 할 때 제가 갖고 있는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하나의 커다란 활동 흐름을 보여주고자 노력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3년 내내 준비해야 하는 전형이니 만큼, 처음부터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빨리 캐치해내고 이 분야를 바탕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세부적인 분야를 정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교육학, 인문학, 사회과학 등 큰 틀을 정해 놓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공간에 대한 관심'을 하나의 흐름으로 잡았고 이에 대한 활동을 생활기록부에 세세하게 녹여 나갔습니다. 세부적으로, 1학년 때는 지리학에 관련된 활동들을 주로 진행하고 2학년에 올라서는 이 분야를 도시과학 분야로 좁혀 나갔습니다. 3학년이 되어서는 도시과학이라는 분야도 더욱 세부적으로 좁혀 건축학에 관련된 활동을 최종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공간에 대한 저의 관심을 이어나갔고, 제가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한 확신을 갖고 건축학부에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 건축학부 20학번 김OO



저는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학업 이외 활동에도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1학년 1학기 때부터 3학년 1학기까지 꾸준히 학생회를 하였으며, 그 안에서 수많은 활동과 경험들을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자신만의 공부법을 찾아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이를 공유하여 공부를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는 다른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콘텐츠를 진행하기도 하였고, 학교 축제에 대해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 홍보 영상을 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학교 축제의 MC를 맡아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호응을 유도하여 성공적인 축제로 마무리 짓는 등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활동들이 현재까지도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 경제금융학부 20학번 정00



여러 활동을 진행하며 수동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제 자신이 주체가 되어 이끌어나가는 학생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3년간 했던 다양한 활동 중 특히 립밤 용기 제작을 주제로 한 탐구활동이 기억에 남습니다. 립밤을 사용하며 뚜껑을 잘못 닫아 내용물이 뭉개짐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는 문제에 착안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립밤 용기를 만들어보고자 했습니다. 먼저 미술문화 수업을 통해 다루었던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이용해 제품을 3D로 설계하고 프린팅하여 시제품을 제작했습니다. 기계적 구현 혹은 사용자가 사용할 때 있어 발생할 문제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설계도 제작까지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쳤고 그 결과 뚜껑을 여닫을 때 내용물이 자동으로 인출, 인입되는 립밤 케이스를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아이디어를 기술적인 부분에서 더욱 발전시키고 싶어 지역 대학교의 기계공학과 교수님께 자문을 구했고, 덕분에 멘토링을 통해 설계를 다듬어 최종 제작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교내 대회에서 제품의 높은 실용성과 기존 제품과의 확연한 차이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자연스레 '내 아이디어로 창업을 진행해볼 수 있을까?'라는 호기심으로 이어졌고, 시장환경조사, 4P분석 등을 진행하여 창업 대회에 참가하며 산업 전반의 시스템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대략적인 설계에서 끝내는 활동이지만, 저는 더 나아가 아이디어를 한 단계씩 발전시켜나가며 제품을 실제로 제작하고 창업에 대한 계획까지 세워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그리기만 했던 아이디어가 실제 하드웨어로 구현되는 과정을 보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주체적으로 활동을 이끌어갔던 제 모습이 생활기록부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산업공학과 19학번 허00



저는 리더십 활동에 가장 중점을 두었습니다. 고등학교 3년간 반장으로서, 친구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주도하였고 학급의 협력과 화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사회 이슈 게시판' 공약이 학우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순서를 정해 각자 진로에 대한 최근 이슈들을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해당 학생은 관심 분야와 관련된 지식을 쌓고 다른 학생들은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게 도왔습니다.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일 년간 살펴본 친구들의 성격에 맞게 역할을 배분하여 성공적으로 연극을 선보였고, 그 결과 학급 전체 1등이라는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급을 대표하는 반장이라는 직책에 걸맞게 전교의 대표자들이 모이는 대의원회의에서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정수기 추가 설치를 건의하였고, 이것이 통과되어 편리한 학교생활을 도왔습니다. 반장으로서 학급과 학교를 위해 구체적인 활동을 주도함으로써 3년간 노력한 결과 제가 가진 리더십 역량과 책임감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었던 활동이 되었습니다.

- 국어국문학과 20학번 김00



저는 1학년 때 특정한 직업과 진로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두고 편식 없이 공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다른 두 과목 사이의 연결성을 찾아보는 탐구 활동을 꾸준히 했습니다. 거창한 탐구 활동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경제 시간에 배운 경제 지표들

을 간단하게 정적분을 활용해서 직접 결과값을 구해보거나 주가 변동에서 등비수열을 찾아보는 활동 같은 것이었습니다. 대회나 동아리 활동에서 장기적으로 하는 수준 높은 탐구가 아닌 혼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었지만, 배운 내용들을 실용적으로 활용해보는 경험을 시작으로 수학을 경제 분야에 응용하는 탐구 활동을 꾸준히 했습니다. 서로 다른 분야를 엮어서 확장해나가는 탐구에 스스로 만족감을 느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진로가 꼭 확실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분야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면서 기존에 알고 있는 것을 새롭게 적용해보는 것이 본인만의 역량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 경영학부 20학번 이OO

Q3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고, 또 어떻게 극복했나요?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방향이 저의 진로희망인 건축가 그리고 도시계획가와 거리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외국어 고등학교를 졸업한 저는 외국어와 인문학에 집중된 교육을 받았고 대부분의 교내 대회나 동아리 또한 외국어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관심 갖고 있던 분야인 도시공학이나 건축학을 배우고 관련된 활동을 진행할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공학과 건축학에 관련지어 세계지리나 물리학을 배우고 싶었지만 교육과정상 세계지리 과목을 배울 수 없었고 물리학의 경우 1학년 2학기 때 겨우 2단위로만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고자 세계지리 학습을 위한 지리 스터디를 만들었고 3년 동안 꾸준히 활동하였습니다. 스터디를 통해 교과서와 관련된 전공 기본 서적을 바탕으로 발표를 하거나 도시문제 답사 활동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물리학의 경우 교내 물리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 건축 분야에 자주 적용되는 사이클로이드 곡선에 대한 물리 실험을 개인적으로 진행하고 실험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학교에서 내가 필요한 활동들을 지원해주지 않을 때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동아리 활동, 스터디 모임, 보고서 작성 등 충분히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를 어필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많으니 성실히 이러한 도구들을 활용하여 어려움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 건축학부 20학번 김OO



저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면서 3년 동안 어느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기본적으로 학업에 충실하고, 다양한 학교 활동을 중심으로 저만의 스토리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3년 동안 빠짐없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챙겨야 할 부분들이 많다 보니 나중에는 어느 한 부분을 놓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고자 모든 학교 활동과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신 관리에 소홀해져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를 해결하고자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활동들을 한꺼번에 챙기기에는 무리가 있어 우선순위를 설정한 후, 그에 맞게 차근차근 해결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에게 필요한 활동들과 필요 없는 활동들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고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 경제금융학부 20학번 정OO



학생부종합전형은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수상,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 학교생활의 모든 부분이 평가내용에 포함됩니다. 때문에 교내 대회나 학술제 준비를 비롯해 한 학기에 두 번 치르는 내신시험, 교내 여러 가지 활동까지 많은 것들을 하나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심적으로 큰 부담을 느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에 집중하면 그것만 파고드는 성격이라 동시에 여러 가지를 진행하는 것에는 한계를 느꼈고, 시간을 철저하게 구분해서 차근차근 도전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기 중에는 대부분 교내 대회 준비, 팀 프로젝트, 봉사 활동 등에 시간을 쏟았고, 대신 내신시험 준비를 위해 시험 3주 정도 전부터 다른 것은 모두 멈춘 채 시험 준비에만 힘을 쏟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제게 주어진 일들을 착실하게 해나가다 보니 저절로 조급한 마음은 줄어들었고, 많은 활동들 사이에서도 스스로 균형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산업공학과 19학번 허OO



아무래도 제가 희망하는 학과가 국어국문학과였다 보니 이를 다른 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어떻게 녹여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컸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과목별 '수행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지리 과목에서의 '나만의 여행 계획 세우기' 수행평가 주제를 '우리 문학의 발자취를 찾아서'로 잡고 한국 문학 작품의 배경지를 조사하였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문학으로만 접하면 알아듣기 어려웠던 방언과 산 줄기를 기준으로 지역이 나뉘어서 생긴 문화 차이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 국어와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수학 과목에서도 한국 속담이 사람들의 인식을 얼마나 반영하는지를 조사하는 통계 포스터 제작 활동을 하였습니다. 실제 설문지를 돌리고 통계처리를 해보면서 수학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었고, 속담이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제게 국어국문학이 모든 과목과 깊게 관련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해주었고, 다양한 학문을 융합하여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었습니다.

- 국어국문학과 20학번 김OO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생 분들이라면 '정성평가'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힘들었던 경험이 바로 이 단어와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내신이나 모의고사에서는 점수와 등급으로 현재 나의 위치와 성적의 등락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투자한 노력의 결과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학생부종합전형은 생활기록부에 담긴 다양한 요소들이 모두 평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학습 활동들을 객관적으로 비교할만한 척도가 없다는 점에서 오는 불안감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활동의 질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수치화된 기준이 없어서 저는 한때 무작정 활동의 양에 치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지난 시간 동안 성실하게 준비해왔던 교내 대회, 동아리, 봉사활동의 의미를 의심하고, 자신감을 잃어가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불안감을 극복한 방법은 활동들의 양에 연연하기보다 하나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확실한 의미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결과가 아닌 그 속의 학습 경험을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학생부종합전형의 특성이기 때문에 활동의 결과 자체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또 다른 성장의 계기가 되었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이라는 마음으로 입시에 임하시면 불안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경영학부 20학번 이OO



Q4 본인만의 공부방법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저는 수능보다는 내신 공부를 중점적으로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내신 공부를 할 때, 모든 과목을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였습니다. 수업 시간 선생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수업내용에 관해 하시는 말씀들은 모두 교과서나 공책에 필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어가기 전 적어도 5번씩 읽고 들어갔으며 취약한 과목이나 어려운 과목들은 7번씩 공부하고 들어갔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된 상태에서는 A4 용지에 각 과목의 단원 제목만을 보고 그 단원의 내용을 정리해나갔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다른 색깔의 펜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 저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고 시험에 들어가기 직전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암기하여 보다 완벽한 시험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전공이 경제금융학부인 것처럼, 고등학교 때도 수학에 가장 흥미가 있었고 투자하는 시간도 가장 많았습니다. 저만의 특별한 수학 공부 방법이 있다면, 다양한 풀이 방법에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풀이 방법 또한 여러 가지였습니다. 따라서 교과서 해설에 있는 풀이 방법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 풀이에 대해 선생님께 여쭙보았고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공부를 반복하다 보니 다른 유형의 문제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력이 높아졌고 수학 성적이 크게 오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 경제금융학부 20학번 정00



내신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을 잘 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 출제자가 수업을 직접 하시는 선생님이다 보니, 수업 시간에 스치듯 알려주셨던 것들이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 강조하신 내용을 추려서 공부하면 가장 효율적이기에 수업을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암기 과목의 경우 수업 내용을 토대로 백지에 여러 번 반복해서 써보는 것이 개념을 구조화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학과 탐구 과목의 경우 최대한 많은 양의 문제를 풀어 보고자 하였고, 같은 유형을 틀리지 않기 위해 오답 체크를 철저히 했습니다. 또한 공부하기 전 계획을 세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그날 끝내야 할 내용을 미리 정하고 시작하는 날과 그렇지 않는 날의 공부 양에는 정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과목별로 완성할 분량을 정하고 그만큼의 분량은 반드시 지키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소한 6시간의 수면시간은 확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잠을 줄여도 보았지만 제 경우에는 부족한 수면상태로 1교시부터 밤 10시가 넘어서 끝나는 자습시간까지 온전히 집중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수면시간을 가지고 깨어있는 시간에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 산업공학과 19학번 허00



저는 평소에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고, 이것이 공부 방법에도 똑같이 적용되었습니다. 혼자서 공부하기보다는 친구들에게 설명하고, 모르는 것은 함께 알아가는 방법이 저에게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내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담당 과목인 국어에 자신 있었지만, 가르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특히 어렵고 긴 비문학 지문을 친구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이를 위해, 한 지문에 관련된 지식을 모두 조사하고 과학 지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험 영상도 참고해가며 친구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제가 공부하면서도 어려웠던 부분은 친구들과 함께 토의를 하면서 답을 찾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멘토링을 준비하는 데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하나의 지문을 공부하면서 여러 유용한 지식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를 포함한 멘토링 친구들 모두가 비문학 부분의 점수가 오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국어국문학과 20학번 김00



아무래도 다양한 과목별로 공부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지만, 멘토링은 특정 과목에 국한하지 않고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사실 멘토링은 흔히 하나의 활동으로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이 역시 공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내신시험이 임박할수록 난이도 있는 기출 문제들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편협적으로 공부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멘토링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간과하고 지나칠 수 있었던 기본적인 개념 문제들을 다시 풀어보고 설명하는 기회가 되었고, 저의 풀이 방식도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실제로 멘토링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멘토링 공부 방법의 핵심은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논리와 충분한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은 풀이라면 그것을 상대방에게 이해시키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방법으로 내 풀이에 허점이 없는지 점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상의 누군가에게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개념들을 되짚어보면서 이 공부 방법을 활용해보시길 추천합니다.

- 경영학부 20학번 이00

Q5 마지막으로 한양대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저도 고등학교 시절 많은 선배님들의 합격수기와 조언들을 찾아보면서 한양대학교 입학에 대한 꿈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합격수기 속 활동 내역과 선배님들의 조언들이 꼭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마다 주어진 환경이 다르고 매해 입학 전형에서의 평가 방법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들이 처한 상황과 잠재성, 학업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따라서 지금 자신의 모습이 합격수기나 조언들에 나오는 선배님들의 모습에 못 미친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주어진 환경에서 후회가 남지 않을 정도의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대한 열정을 고등학교 3년 동안 충실히 학교생활기록부에 녹여내겠다는 다짐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자신의 교과 성적과 비교과 활동들이 합격수기 속 선배들보다 부족하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수시 접수 날짜까지 끈기 있게 자신의 열정을 이어나가며 입학사정관분들께 자신만의 스토리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 건축학부 20학번 김00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대학을 진학하는 것이 목표인 학생이었습니다. 3년 동안 학종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결국 체력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정말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는 전형입니다. 특히 3학년이 되면 챙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한계가 오는 시기가 생깁니다. 따라서 평소에 관리하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시기에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체력관리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고등학교 3년은 길고도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목표를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달려오는 유의미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와서 '그때 조금만 더 열심히 할걸', '잠을 조금이라도 아끼걸'이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물론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열심히 잘 살았다'고 스스로를 칭찬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파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할게요!

- 경제금융학부 20학번 정00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까?’, ‘현재 내가 하고 있는 활동들이 괜한 것은 아닐까?’, ‘내가 해낼 수 있을까?’. 3년 내내 제 머릿속을 맴돌았던 고민들이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두고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산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절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제가 해드리고 싶은 조언은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이 명확하고, 현재 하고 있는 활동들을 통해 흥미와 성취감을 느끼고 있다면, 망설임보다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에서의 3년을 통해 제가 배웠던 것은 망설이기만 해서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확신을 가지고, 조금함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보낸다면 어느새 여러분들께 좋은 결과가 다가와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힘든 순간이 온다면 대학생이 된 멋진 여러분들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수험생 여러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모두 한양대학교에서 만나요 :)

- 산업공학과 19학번 허00



한양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이 학생부만으로 평가하다 보니 준비 과정에 있어 고민이 더욱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 또 그 깊이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할지가 주된 관심사일 것이라 예상됩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떤 활동이든지 마지막에는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 최대한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방향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진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활동을 심도 있게 하는 것도 좋지만,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일생의 진로를 정하기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와 같이 어문계열로의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의 경우엔 더욱 활동이 제한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 분야의 활동을 접해보고 자신의 성향과 가장 적합한 진로를 찾아나가는 과정 자체가 평가에 있어서 좋은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로를 아직 잡지 못해 방황하는 학생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껏 해온 만큼 열심히 노력하시면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항상 응원하고, 미래에 한양대학교에서 보아요!

- 국어국문학과 20학번 김00



제가 한창 입시를 준비했을 당시에 주위의 선생님들과 선배들로부터 비록 지금은 힘들어도 지나고 돌이켜보면 이 시간들이 모두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이라는 응원을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의 저는 그 말에 공감하기 어려웠는데, 제가 선배의 입장이 되어보니 그 의미가 이해되고 저 역시 같은 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입시는 굉장히 큰 마중표처럼 느껴지겠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 더 넓은 세계로의 출발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신과 각종 활동에 들이는 노력은 입시가 끝난 후에도 결코 헛되지 않으며 대학 생활을 하면서 또 그 이후까지도 여러분에게 소중한 자양분이 되어줄 것입니다. 저도 고등학생 때 이른 아침부터 새벽까지 치열하게 공부했던 시간들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지만, 이제는 앞으로 제 삶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무언가에 열중하는 시간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두 번 다시 없을 여러분의 소중한 학창시절이기에 여러분도 돌이켜보았을 때 일말의 후회가 남지 않도록 매순간 최선을 다하셔서 꼭 한양대학교에서 뵙길 바라며 그때까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 경영학부 20학번 이00



한양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가이드북



한양대학교
HANYANG UNIVERSITY

서울캠퍼스

04763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입학처

신입학 02.2220.3064~3072 | 편입, 재외국민 02.2220.3080~3083 | go.hanyang.ac.kr